

[종합]

전남 학교급식 가공식품·육류도 '친환경'으로

이달부터 전남도내 학교급식 메뉴가 학생들의 기호에 맞춰 다양해진다. 전남도가 쌀 등 곡식류, 채소 등 부식류에 한정하던 식재료비 지원을 딱딱이·쌀국수 등 1차 가공식품, 친환경축산물까지 확대한 덕분이다.

전남도는 1일 "그동안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친환경 농산물에만 한정해왔으나, 일선 학교 요구에 부응해 친환경축산물과, 친환경농산

쌀·채소 이어 모든 식단에 확대... 2,377개교 지원

물을 원료로 하는 1차 가공식품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시·군과 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은 늘리지 않고, 예산 범위내에서 이들 식재료 비용을 지원한다.

이 경우 쌀국수, 전분 등 1차 농산물 가공식품, 소·돼지·닭 등 무항

생제·유기농 육류에 대한 식재료 지원도 가능해져, 일선 학교 식단이 현재보다 훨씬 풍족하고 맛깔스러워질 전망이다. 축산사료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을 원재료로만 사용하는 바람에

입비의 30% 이상을 학부모가 부담키로 결정된 데 따라 나머지 70%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 친환경 농산물을 도내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연인원 137만2천여명에게 모두 823억여원을 지원해 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한국 첫 우주인 스트레스?

이소연·고산씨 중압감에 모발 손상 심해

항공우주의학연구 분석



씨와 고씨의 머리칼을 각각 측면과 정수리 부위에서 채취했다. 채취당시 길이는 이씨가 15~20cm, 고씨가 3~5cm 정도였다. 장 교수팀은 이렇게 채취된 머리칼을 주사전자현미경(외부미세구조)과 투과전자현미경(내부미세구조)으로 관찰하고

오는 4월 8일 한국 최초 우주인 탄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 첫 탑승우주인으로 선정된 이소연(29·사진)씨와 고산(31)씨가 '첫 우주인'이라는 중압감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머리카락'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일 한서대 피부미용학과 장병수 교수와 항공우주의학안전연구소 이원근 교수팀에 따르면 한국 첫 우주인으로 선발된 이씨와 고씨의 머리칼을 훈련기간 중에 채취해 형태적 변화와 인장강도 등을 분석한 결과, 건강한 머리카락에 비해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이들의 머리칼에서는 윤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머리카락 표면은 큐티클(모발의 겹겹질)이 부서지거나 들떠 있었고, 큐티클층에는 정상인에서 볼 수 없는 많은 구멍들이 관찰됐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지난해 12월18일 이

인장강도(잡아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성)를 정상인의 것과 비교 실험했다. 장병수 교수는 "두 우주인 모두 모발의 표면인 큐티클층에서 부서지거나 들떠 있는 게 확인됐다"면서 "이는 염색이나 탈색, 자외선조사 등에 의한 물리화학적 손상 정도에 비해 아주 심각한 정도였다"고 평가했다.

인장강도 조사결과를 보면 건강한 머리카락의 인장강도가 약 21.4g/cm인데 비해 이소연씨의 인장강도는 약 14.6g/cm로 건강한 사람 머리카락의 1/3~1/4 수준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타르 제거 주민 동의 있어야 종료"

전남도, 추가 유입 정황 없지만 관찰 지속

전남도는 서해안 유류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영광·신안 지역에 대한 타르 방제작업을 타르 완전 제거 사실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계속하고 주민이 동의해야 타르 방제 종료선언을 하기로 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 피해 지역 20개 읍·면에 3개 반 14명의 일제 조사반을 편성해 지난달 25일부터 4일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로 타르가 유입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방제작업에서 발견되지 않았거나 녹아내린 타르가 수면 위에 떠다니다 조류를 타고 유입되거나 해저에 가라앉은 타르 불이 해수면 기온 상승으로 해변에 유입될

가능성이 아직 있는 것으로 보고 타르 불이 떠다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들 3개 군에 지금까지 해온 타르 방제와 함께 추가 유입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지역방제본부장인 목포해양경찰서장에 주민들의 안전한 동의가 없을 경우 타르방제 활동 종료선언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생계비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수령한 1명에 대해 반환토록 조치했으며 어업종사 사실이 불분명한 2명에 대해서는 소명을 거쳐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반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 양돈농가 돕기

양돈농가를 돕기 위해 1일 전남도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돼지고기 시식회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영 지사와 각급 기관단체장, 양돈협회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가 선보였다. <전남도청 제공>

나라빛 299조 국민 1인당 616만원

지난해 국가채무가 298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1천억원 증가했으며 참여정부 5년간 증가한 국가채무는 13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가채권은 184조원으로 전년보다 46조9천억원 늘었으며 국유재산은 276조원으로 5조9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심

의·의결했으며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298조9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6조1천억원 늘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전체 인구(4천845만6천명)로 나눠보면 1인당 나라빛은 616만원에 달한다.

또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289조1천18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8천881억원(5.8%) 늘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32.1% 수준으로 전년의 32.2%에서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11조2천억원)와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발행(6조7천억원) 등에 사용됐다.

중앙정부채무는 2003년 158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289조1천억원으로 5년간 130조2천억원(82.0%) 증가했으며 GDP 대비 규모는 2003년 22.0%에서 지난해 32.1%로 10.1%포인트 늘었다.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 등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17조3천억원(40.6%)이었고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1조9천억원(59.4%)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광주시, 온난화 주범 이산화탄소 줄이기 선언

광주시가 공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CO2) 절감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CO2 프라미스(CO2 Promise)' 선언식을 갖는다.

시는 '푸른광주21협의회'와 함께 2일 오전 청사 1층 로비에서 행정, 기업, 시의회, 유관기관, 학계, 종교계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CO2 프라미스' 선언식을 개최한다.

'CO2 프라미스'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는 등 생활속에서 CO2 배출을 줄이겠다는 실천의지를 담은 약속이자 선언이다. /윤영기기자 perfoot@

빛의만평

- 김중두



느낀게 많았습니다

30만t 유조선 1척에 실린 기름 우리나라 전 국민 하루 소비량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유조선 1척에 실린 원유로 우리나라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1일 GS칼텍스 여수공장에 따르면 보통 유조선 1척에 실린 원유 30만t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에 소비하는 양이다.

원유 30만t은 국내 석유화학공장에서 정제작업을 거쳐 휘발유 3만t과 경유 7만5천t 등 20여종의 석유 제품이 생산된다.

원유 30만t을 선박에 싣고 내리는데 걸리는 데에는 각각 45시간이 소요된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원유부대에 입항하는 유조선은 한 달에 9~10척, 대개 28만~30만t급으로 30만t급 선박의 경우 길이 333m, 너비 60m, 높이 50m로 축구

장 3배 크기에 달한다. 유조선 내에는 엘리베이터와 탁구장, 수영장, 사우나 등 최신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승무원 약 25명이 승선한다.

유조선이 중동에서 원유를 싣고 여수공장으로 도착하는데 18~19일이 걸리며 선박 연료만 도 버커0유가 하루 90t 들어간다. 원유를 싣지 않고 여수공장에서 중동으로 갈 때에는 선박 무게가 가벼워 중동에서 여수공장으로 올 때보다 하루나 이를 덜 걸린다.

지정된 금연장소 1~2곳을 제외하곤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특히 원유가 저장된 갑판 위에서는 방폭(防爆) 전자·전기·전동기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訃告

李友行大人 豐山 咸平 李公 載郁 以老患 二〇〇八年三月三十一日 午後九時三十分 別世 茲以告訃

喪所.. 朝鮮大病院葬禮式場 第一焚香所
發期日時.. 二〇〇八年 四月 三日 午前 十時
永訣式.. 二〇〇八年 四月 三日 午前 十時
葬地.. 全南 咸平郡 羅山面 牛峙里 先塋
二〇〇八年 四月 二日

嗣子 李 羅 其 友 奇 任 英 英 妍 恩 恩 建 建 建 善 和
孫子 李 李 趙 吳 朴 鄭 金 英 美 令 子
孫女 李 李 趙 吳 朴 鄭 金 英 美 令 子
孫婿 崔 崔 崔 崔 崔 崔 崔 崔 崔 崔
孫婦 李 朴 李 趙 吳 朴 鄭 金 英 美 令 子
孫婿 崔 崔 崔 崔 崔 崔 崔 崔 崔 崔
孫婦 李 朴 李 趙 吳 朴 鄭 金 英 美 令 子

護喪 日新綜合建設(株)會長 李載寬
葬禮委員長 文成高等學校長 丁仁聲
連絡處.. 朝鮮大病院葬禮式場 (062) 220-3352
文成高 行政室 (062) 670-7500
個別訃告省略

豐山學園 設立者 理事長 豐山 咸平 李公 載郁 以老患 二〇〇八年 三月 三十一日 午後九時三十分 別世 茲以告訃
豐山學園任職員一同

豐山學園 設立者 理事長 豐山 咸平 李公 載郁 以老患 二〇〇八年 三月 三十一日 午後九時三十分 別世 茲以告訃
文成中·高等學校教職員一同

豐山學園 設立者 理事長 豐山 咸平 李公 載郁 以老患 二〇〇八年 三月 三十一日 午後九時三十分 別世 茲以告訃
文成中·高等學校同窓會一同